

락랑박물관을 찾아서 (1)

락랑문화를 후세에 전해주는 교양거점

공화국의 민족문화유산보 호정책에 의하여 최근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락랑박물관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되었다.

지역적으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청천강이남으로부터 레성강유역에 이르는 중서부조 선일대에 분포되어있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B.C. 3세기 이전부터 A.D. 4세기 전반기까지를 포괄한다.

류의 무덤들과 무기장구류, 마구 및 수레부속품류, 물치 레거리와 용기류 등이 있다. 얼마전 락랑박물관을 찾은 우리에게 남경희책임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락랑지구의 가치 있는 고분들을 한곳에 집 결시켜 박물관을 꾸리고 주

변을 공원화할대 대하여서와 유적유물들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와 보살피심에 의하여 력사 교양구와 민속놀이구, 휴식구 등으로 구성된 락랑박물관이 훌륭히 완공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있다고 그는 말 하였다.



올림폭포

강원도 천태군에 위치하고있는 폭포로서 높이는 75m이다. 이 폭포는 장엄한 폭포소리가 온 골안을 울리며 멀리로 메아리쳐간다고 하여 올림폭포로 불려왔다.

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올림폭포의 장쾌한 모습과 불수록 유정한 주변경치는 그야말로 아름답다.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영명사 돌사자

고구려인민들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문화유산들 가운데는 영명사 돌사자도 있다. 일반적으로 돌사자 조각은 불교전설과 많이 결부되고있는데 그것은 주로 사찰에 세워졌던것과 관련된다.

당시의 돌가공기술을 잘 보여주고있다. 영명사의 돌사자는 고구려인민들의 역센 기상과 뛰어난 돌가공기술을 찾아볼수 있게 하는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속담과 뜻

◆ 빈달구지 굴러가는 소리가 더 요란하다. 짐을 무겁게 싣고 굴러가는 달구지에서 나는 소리는 별로 요란하지 않으나 아무 짐도 싣지 않고 굴러가는 달구지의 소리는 덜컹덜컹 소리가 자못 요란하다는 뜻으로서;

사화 연암동과 박지원 (2)

글 리성우, 그림 채대성

연암은 이번에도 금학골에 있는 량씨네 집 별장에 려장을 풀었다. 이 집은 연암이 개성으로 오가면서 사친 량정명이라는 젊은이의 집인데 풍월을 즐기는 그의 아버지 량씨로인은 꽃과 나무를 심고 집과 뜰도 깨끗이 거두고 동네로 인들과 함께 활쏘기와 장기, 가야금과 술로 소일을 하는 풍류객이었다.

암의 집을 가리키는 말이였다. 금강산경을 하고 돌아와서 연암의 집에 모여 놀았는데 그때 스물아홉살 난 연암이나 서른여섯살 난 사경이 나 한창나이인데도 꾸밈없이 흰머리카락이 대어섯씩 보였었다.

가을철 건강관리

가을철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하므로 호흡기계통과 순환기계통의 병에 걸리기 쉽다. 이러한 질병들은 약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방하거나 치료할수 있다.

최우수발명가상 첫 수상자들 옥류 아동병원 과장 리철진

천연기념물 갑산비슬나무 갑산비슬나무는 갑산군 송암리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높이 22m, 밑동둘레 7.2m이다.

가을철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하므로 호흡기계통과 순환기계통의 병에 걸리기 쉽다. 이러한 질병들은 약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방하거나 치료할수 있다.

연암의 생애에서 평범한 보통날의 하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러나 이 하루저녁의 이야기속에 연암의 큰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었다.